

## 原子力産業의 活性化를 爲한 相互協力

會長 朴 正 基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세계원자력계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일본원자력산업회의 제18차 연차대회의 자리를 빌어 제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의 대회장 자격으로 이대회를 소개하고 여러분 모두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초청하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 제5차 태평양연안국원자력회의는 5월 19일부터 5일간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립니다.

「원자력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기조테마로 한 이대회에는 24개국 94명의 저명한 학자를 비롯하여 정책입안자, 기술자, 원자력기구지도자가 모여 「원자력개발계획과 대책」 「쓰스덤과 안전 목표」 「핵연료 주기의 완결」 「지역협력」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과 방사선 기술」 「원자력발전소의 보수·유지」 등의 6개 주제를 놓고 값진 의견을 교환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서울대회에서는 원자력전시회도 열어 세계의 51개 업체에서 최신기기와 기술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

## The Address of Invitation to the 5th PBNC held in Seoul delivered by Park Jung-Ki, Chairman of KAIF, at the 18th JAIF Annual Conference

---

본인은 틀림없이 이 5차대회가 원자력산업의 활성화와 국제협력에 위해 대단히 유익한 회의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원자력인사 여러분.

한국은 현재 원자력발전소 3기가 가동중이며 2기가 준공단계에 있고 4기가 건설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개발도상국으로서는 가장 많은 원자력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로서 많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면에서도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드릴 많은 대상이 있습니다.

참가하신 분들은 산업시찰과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원자력시설은 물론 5천년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서양에서 오실 손님은 동양문화의 진수를, 그리고 동양권에서 오실 손님은 일본이나 중국 그리고 인도와는 또 다른 독특한 문화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조용한 아침의 나라」 한국의 5월은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알맞은 기후와 화사한 봄의 색깔, 그리고 맑은 물과 깨끗한 하늘은 여러분 일생에 가장 기념할만한 추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합니다.

서울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